

스포츠원 **SPORTS1**

2022 07 | VOL.73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MONTHLY MAGAZINE



CONTENTS



태권도, 가장 큰 행복이자 즐거움

처음 시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10여 년이 훌쩍 넘는 세월 동안 태권도는
늘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하는 이다빈 선수.
그녀는 2년 6개월 만에 재개된
'2022 세계태권도연맹(WT) 월드태권도그랑프리'
1차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종주국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올림픽 우승이라는 간절함을 품은 채
최선을 다하는 이다빈 선수를 응원합니다.

SPORTS1

2022 07 | VOL.73

발행인 이기홍 회장

편집인 박춘섭 사무총장

발행처 대한체육회 홍보실

발행일 2022년 07월 20일

주소 055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문화센터

전화 02.2144.8114

팩스 02.420.4233

홈페이지 www.sports.or.kr

등록번호 송파, 라 00052

기획·디자인 디자인메카 02.516.1910



- 본지는 한국도서접지윤리위의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는 대한체육회 홈페이지(www.sports.or.kr)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으며, 본지에 게재된 기사는 본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 발행되고 있습니다.

06



KSOC & SPECIAL

04 포토에세이

06 THEME TOPIC

체육인복지법,
체육인의 복지와 생활안정을 이뤄줄까?

12 THEME REPORT

운동선수 진로 고민,
혼자 하지 마세요!
대한체육회 진로지원센터




KSOC & SPORTS

- 16 **ZOOM IN ①**
대한체육회 박춘섭 사무총장
- 20 **ZOOM IN ②**
2022 제11회 버밍햄월드게임
- 24 **HERO OF GENERATION**
역전의, 역전의, 역전의 스포츠
태권도 국가대표 이다빈
- 28 **SPONOMICS**
생활체육 활성화,
경제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
- 30 **TECH INSIGHT**
사람은 어떻게 물에서 헤엄칠까?
수영에 담긴 과학 원리
- 34 **GLOBAL SPORTS PRISM**
코치, 심판 그리고 경기 예측까지
AI로 진화하는 스포츠
- 36 **월드 스포츠7330**
MTB 동호회, 수지자전거마을
- 40 **학교야 체육하자!**
체육교육의 미래적 가치를 고민하다
대전 한밭고등학교



KSOC & TREND

- 44 **NEW NORMAL & SPORTS**
일상으로 들어온 스포츠웨어
애슬레저룩(Atheleisure look)
- 46 **SNS 라이브**
소통+영상+커뮤니티, 11만 팔로워를 보유한
대한체육회 페이스북
- 48 **가볍게 스포츠**
무더운 여름, 슬기로운 운동 가이드
- 50 **가볍게 여행**
여기 어디?
힐링 걷기 명소 제주!
- 52 **KSOC 모의고사**
도전! 나도 Sporter
- 54 **KSOC NEWS**



대한체육회의 102년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을 위해 씀 없이 달려온
선배 체육인의 열정과 도전,
국민의 뜨거운 성원이 커커이 쌓여 만든 역사입니다.

스포츠 발전을 생각하는, 그 오롯한 마음이
한 세기가 넘게 이어져 왔기에
오늘날 스포츠 강국의 위상도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거대한 가지를 드리웁니다.
대한체육회는 새로운 체육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는 혁신과 노력으로 위대한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체육인복지법

체육인의 복지와 생활안정을 이뤄줄까?

글. 성문정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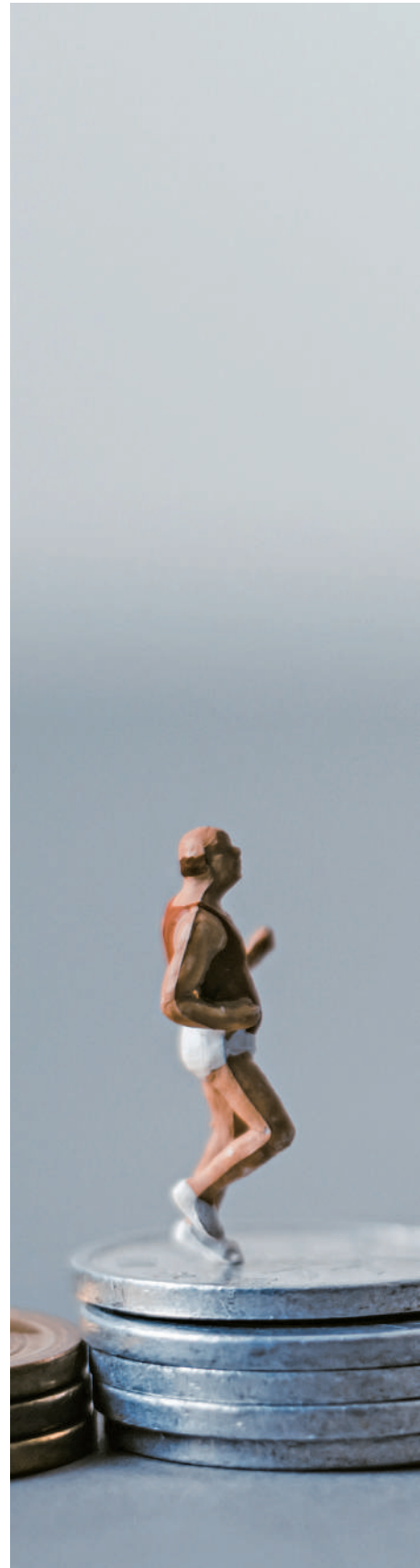
체육인의 오랜 숙원이었던 '체육인복지법'이 2022년 8월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공포를 앞두고 타 부처와 막바지 협의 과정에 있다.
'체육인복지법'은 어떤 내용은 담고 있으며,
체육인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알아본다.

들어가며

● 「체육인복지법」은 왜 제정됐나?

「체육인복지법」은 「스포츠기본법」과 함께 기나긴 여정 끝에 2021년 8월 10일 공포됐다. 필자가 2010년 시안을 첫 연구·개발해 성안하고 2012년 제18대 국회에서 입법 발의된 이후 10년만이다. 주관적 판단이지만 체육계 입법들이 발의 후 통상 6~7년 걸렸던 것에 비하면 두 배 가까운 시간이 걸린 것이다.

「체육인복지법」은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등에 대한 포상금과 의료비 및 장학사업 등 복지후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경기대회에 출전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뿐 아니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선수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체육인에게 체육활동 관련 사업의 창업 준비 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존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된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대한 제도를 이관해 「체육인복지법」 안에서 통합·관리하는 목적도 갖고 있다.





● 「체육인복지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체육인복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인복지법」에서 지원해야 하는 체육인의 범주를 정의하면서 그 대상을 선수·지도자·심판으로 한정하고 있다(제2조제1호 가·다목).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이 국민체육진흥과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공헌할 수 있도록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예산 범위에서 체육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체육인의 근로실태와 생활 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법 제5조, 제6조).

셋째, 체육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체육유공자의 지정 및 보상(제7조)과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에 대해 지원하도록 하고, 지역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체육인이 은퇴 후 지병, 생계 곤란 등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의료비 전부 또는 일부와 생계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제10조 및 제11조). 또한, 체육인들의 은퇴 후 사회 적응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로 지원 및 창업지원 사업 실시, 창업 준비 자금 등을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제12조 및 제13조).

이외에도 체육인의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체육인복지서비스지원시스템 구축·운영(제16조),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제17조 및 제18조). 이러한 조문 구성은 법률과 집행단체의 사내 운영규정 등으로 각기 흩어져 있던 체육인 복지제도를 하나의 법률 속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그 시행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체육인들은
「체육인복지법」이
더 많은 체육인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나
국가 체육정책 속에서
어떻게 담보해 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본론

● 체육인의 복지와 생활안정을 어떻게 보장해줄까?

「체육인복지법」은 체육인의 생활안정을 보장해줄 수 있을까? 체육인들은 「체육인복지법」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할까? 그렇다면 「체육인복지법」은 이러한 체육인의 물음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이런 저런 질문에 대해 한마디로 말할 수 없지만, 「체육인복지법」 제정을 제안하고 법률 시안과 시행령 시안을 개발한 필자로서는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다.

가장 큰 문제는 「체육인복지법」에 따라 지원받아야 하는 체육인이 선수·지도자·심판으로 매우 제한적이고, 동시에 같은 체육인의 경우라도 혜택을 받을 대상이 되는 국내외 대회에 참여한 경력이 있어야만 수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선수와 지도자 등의 체육인이 더 좋은 조건에서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항상 옆에서 지원하는 체육단체의 임직원이나 전문 연구인력들은 과거 선수이거나 지도자, 심판의 경력이 없다면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부분이 체육계에서 종사하는 다양한 체육인들이 가장 안타깝거나 불만스러워할 수 있는 점이다. 하지만 국가 체육 제정의 한계를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는 차상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국위선양이 법 제정 목적에서 삭제되면서 체육이 국위선양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던 시대를 벗어난 상태에서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했다고 각종 체육인복지제도를 독점적으로 수혜 받도록 하는 것은 공정성을 강조하는 이 사회가 용인하기 쉽지 않은 주제일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장학사업, 원로 체육인 지원, 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 지원, 자금대여 사업 등이 확대되면서 국제대회 메달리스트에게 집중되었던 기존의 독점적 지원체제에서 벗어나 더 많은 체육인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은 그간 체육인복지 사업에서 소외되었던 체육인에게는 적잖은 희망적인 제도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 체육인의 복지와 생활안정을 돕는 법률이 되려면

그렇다면 「체육인복지법」이 진정한 체육인 복지와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법률이 되려면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아야 할까?

첫째, 한정적인 체육인복지사업 예산 분배 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독점적 분배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전체주의, 국가우선주의 정치이념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올림픽 메달리스트 중심의 체육연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우리의 체육연금제도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연령과 상관없이 다음 달부터 100만 원을 지급하는 구조다. 이러한 구조는 올림픽 메달 하나로 그 사람이 국가체육 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했느냐를 평가하기 전에 미래 삶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또한 비 올림픽 종목과의 공식적 차별을 용인하는 불공정 제도의 하나이기도 하다.

더불어 이러한 체육연금 구조는 연금이 갖는 사전적 의미에서부터 어긋난다. 일반적으로 연금이란 '피용자(被傭者) 또는 국민이 소정의 기여금을 일정 기간 납부하고 퇴직하거나, 노령·장애 혹은 사망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정 기간마다 계속해 지급받는 급여'를 말하기 때문이다.

둘째, 더 많은 체육인이 더 좋은 수혜를 볼 수 있는 복지제도의 설계가 반영돼야 한다. 이는 장학사업, 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 지원 교육, 자금대여 사업 등의 확대와 연계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수혜 대상을 이 법에서 정한 체육인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체육 발전을 위해 기여한 모든 체육인에게 혜택을 줄 수는 없는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 지원 교육은 체육인의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사는 데 매우 중요한 교육사업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7년 은퇴선수 실태조사(대한체육회, 2018)에 따르면 은퇴선수의 35.4%가 무직이며, 40세 미만의 은퇴선수 71%가 대학교 졸업 이후 바로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종목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종목의 국내외 경기대회에서 부단한 노력과 헌신으로 국가체육 발전에 기여했다면 「체육인복지법」 따라 최소한의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확대·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방안이 제대로 설계돼야 한다. 현행 「체육인복지법」에서는 체육인복지를 위한 재정확보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5조에서조차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형식으로 재정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곧 체육인복지사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좌지우지되므로 여타 다른 사업에 비해 재정 지원의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따라서 재원 마련을 위한 사업들이 「체육인복지법」 체계 속에서 별도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안정적 재원확보 없이 체육인복지사업은 지속성을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예산이나 사업수익, 기부금 등으로 체육인복지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제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체육인복지에 대한

지원 문제인 만큼

이해 당사자인

체육인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굿 거버넌스를

구성해 '균형의 묘'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나가며

● 체육인복지를 위한 법률적 제도화의 시작

「체육인복지법」은 체육인의 복지와 생활안정을 이루어줄 수 있는 만능법이 아니다. 체육인 복지를 법률적으로 제도화한 것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엄밀하게 말해 체육인복지를 위한 사회안전보장시스템의 법·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 것뿐이다. 때문에 우리 체육인들은 「체육인복지법」이 더 많은 체육인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나 국가 체육정책 속에서 어떻게 담보해 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체육인복지법」의 안정적 운영과 체육인복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해당 법에 위임된 내용들을 기본계획에 얼마만큼 충실히 반영하는가에 달려 있다. 「체육인복지법」이 시행되는 2022년 8월 이후 기본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있겠지만, 필자의 경험으로 보면 지원 범위와 내용을 법적 근거 없이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체육인복지에 대한 지원 문제인 만큼 이해 당사자인 체육인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구성해 '균형의 묘'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SPORTS1*



운동선수 진로 고민,
혼자 하지 마세요!

대한체육회 진로지원센터

글. 편집실

운동선수들은 청소년기 훈련으로 인한 학습 결손이 많아 진로 선택에 필요한 역량 개발의 기회가 적다. 다른 직종에 비해 제2의 인생을 선택하는 시기도 빠른 편이다. 그 때문에 한창 운동에 전념할 시기에도 진로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는 이가 많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진로지원센터를 통해 운동선수의 성공적인 진로 전환을 위한 상담부터 교육, 멘토링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립 지원 교육은 체육인이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사는 데 매우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운동선수의 성공적인 진로 전환을 돕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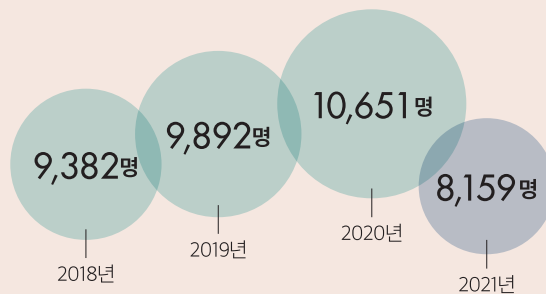
운동선수의 진로 전환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다. 스포츠·교육·고용 등 사회적 접근이 필요하며, 선수들의 탄력적인 진로 전환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 운동선수의 성공적인 진로 전환은 우리 사회의 롤 모델이 되어 스포츠 가치 확산 및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 선수 인력의 사회 환원으로 스포츠 전문화와 고용 창출 효과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

대한체육회 진로지원센터(이하 진로지원센터)는 2017년 운동선수에게 체육 분야 일자리 정보를 알리고, 다양한 취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선수 활동 이외의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설립됐다. 설립 이후 운동선수들이 새로운 미래를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 중이다. 진로지원 프로그램은 진로 설계의 중요성과 직업 정보를 알려주는 '청소년 선수 진로 교육', 맞춤형 진로 탐색 및 설계를 돕는 '진로 상담', 직무 능력과 전문성 함양을 돕는 '진로역량교육', 다양한 분야의 현직자가 해당 직무에 대한 이해와 설계를 돕는 '멘토링' 등으로 이뤄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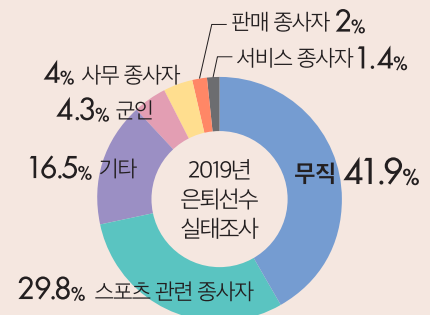
당연한 말이지만, 진로지원 프로그램은 운동선수 경력자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운동선수 경력이 있다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진로지원센터는 2021년 4월, 기존의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운동선수의 접근성이 보다 높은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으로 동지를 옮겼다. 또한 진로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 하고, 이용 선수들의 편의성으로 높이기 위해 내부 시설도 새롭게 단장했다.

선수 경력자(은퇴선수) 발생 현황



*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에 3회 이상 등록하고 해당년도에 선수등록하지 않은 20~39세 선수경력자 기준

은퇴선수 직업 유형별 종사자 현황



* 2018년 은퇴선수 652명 대상 조사

새로운 미래를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진로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진로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진로 인식 개선’과 ‘진로 전환 지원’으로 나뉜다.

#1

진로 인식 개선

진로 인식 개선은 ‘청소년 선수 진로 교육’이 중심이다. 해당 교육은 2016년도부터 은퇴선수 출신의 전문강사를 양성하여 전국 운동부가 있는 고등학교로 강사를 파견해 진로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2019년도부터는 중학교 학생선수를 포함 학부모 지도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발 빠른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학생선수들에게 자기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진로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선수 시절부터 미리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경력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의 확장을 돕는다. 학생선수들이 운동을 포함해 다른 분야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목표설정의 중요성, 스포츠 분야 관련 자격증 소개 및 준비 방법, 직업 정보 제공, 경력개발의 중요성 등이다. 해당 교육을 원하는 학교는 공문을 통해 대한체육회로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도 학생선수들에게 자기 이해를 통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분야의 멘토들의 경험과 서로의 고민을 공유하고 소그룹으로 진로를 체험할 수 있는 ‘스스로 올림픽’과 학생선수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선수의 성장 과정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경력 전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수 학부모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또한 체육특기자 대학 입시 정보를 통한 대입 준비 방법과 정보 공

유를 할 수 있는 ‘체육특기자 대입설명회’, 운동선수들의 경쟁불안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진로에 대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 개인의 성장 및 선수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진로멘탈코칭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2

진로 전환 지원

진로 전환 지원은 선수 경력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운동선수 이외의 다른 직업을 원하는 경우 진로 상담·진로역량교육·멘토링 등을 통해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해준다.

먼저 ‘진로 상담’을 통해 진로 설계의 기초를 다잡는다. 이 과정에서 전문 직업상담사들은 진로 고민이 있는 운동선수와의 상담을 통해 적합한 직업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등을 설계한다. 그리고 진로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연계, 취업 대비 과정 지원(면접, 이력서 등), 심리·생활관리 지원 등을 진행한다.

‘진로역량교육’은 스포츠 전문 교육, 직업 기초 교육, 기타 교육 등으로 선수 경력자들의 새로운 역량 개발과 강화를 돕고 있는데, 선수 경력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진로지원센터가 직접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강사도 초빙한다.

‘멘토링’은 다양한 분야의 현직자가 멘토로 활동하며 해당 직무에 관한 멘티들의 이해를 돕고 진로 목표 설정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쉽게 말해 운동선수들이 은퇴 이후 진출하고 싶은 분야를 선택한 뒤 그 분야에 종사하는 멘토들의 도움으로 직종에 대한 이해

실적 내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목표
				코로나19로 온라인 중심		
선수 진로 교육	진행 횟수	106회	173회	온라인 개별 참여	113회	220개교
	교육 인원	4,037명	5,380명	3,014명	1,215	2,500명

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멘토와 멘티가 형성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만나 멘토링을 진행하고 직업 정보나 직무 경험을 공유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세우는 활동을 진행한다. 프로그램 구성이나 운영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멘토와 멘티 간 활발한 소통을 통해 가장 필요한 교육과 활동이 이뤄진다.

도전하지 않는 삶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진로 지원센터는 전현직 운동선수들이 운동이 아닌 분야에서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한다. 이를 위해 문턱을 낮추고, 빗장을 활짝 열어둔 채로 진로 설계의 막막함을 겪는 선수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SPORTS1**

대한체육회 진로지원센터를 둘러볼까요?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에 자리한 진로지원센터는 운동선수들이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개방성을 강화한 진로 지원 복합 문화 공간이다. 내부 공간은 크게 강의실, 상담실, 1인 스튜디오, 휴게실로 구성돼 있다.

강의실은 선수들을 위한 진로 교육이 진행되는 공간이다. 또한 선수들이 직접 예약하면 스터디, 멘토링, 회의, 세미나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상담실은 선수들이 전문 상담가와 일대일로 진로 고민을 상담하는 공간으로, 상담실 간은 물론 외부와도 확실하게 분리돼 있다. 방음벽이 설치된 1인 스튜디오는 선수들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를 촬영하거나 개인 방송 등의 스튜디오로 활용하고 싶은 선수들이 빌려 사용할 수 있다. 휴게실은 편하게 공부하거나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진로지원센터에 비치된 진로 관련 책들을 자유롭게 꺼내 읽을 수 있다. 휴게실 옆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간단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셀프바도 설치했다.

- **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 편익시설 A-1동
- **운영 시간** 평일 09:00~18:00, 공휴일 휴무
- **문의** 1588-3011
- **홈페이지** welfare.sports.or.kr



“대한민국 체육의 미래를 위해 사명을 다할 것”

대한체육회 박춘섭 사무총장



PROFILE

박춘섭 사무총장은 서울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맨체스터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를 취득한 뒤, 제31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기획예산처 법사일반행정·중기재정·투자관리과장 등을 거쳐 2012~2013년 기획재정부 대변인을 역임한 바 있다. 이후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을 거쳐 2017~2018년에는 조달청장으로 근무하는 등 20년 넘게 경제 부처에서 근무한 예산·재정 전문가이다.

Q.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과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6월 27일부터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아직 체육 초보자라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육인이 된 만큼,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으로서 체육계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Q. 대한체육회에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습지만, 체육계에서 느끼신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첫 외부 행사가 지난 7월 4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2년 회원종목단체장 간담회’였습니다. 그날 처음 접한 종목도 있었는데, 체육 분야가 제가 알던 범위보다 더 다양함을 알았습니다. 또한 재정 확보를 위한 기부와 세액 공제 등 체육회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들으며 많은 분이 열정적으로 일하신다고 느꼈습니다.

Q. 최근 역점을 두고 계신 업무는 무엇인가요

업무를 시작한 지 이제 3주 차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대외 업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예산실 등을 방문해 대화하고 있습니다. 대외 활동을 하는 한편, 체육회 내 행정적인 일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업무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 나갈 것입니다.

Q. 기획재정부 대변인과 예산실장 등을 거친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고 계십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대한체육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실 예정이신가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행정과 예산 분야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존 조직에서의 경험을 살려 대한체육회의 행정 체계를 효율화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체육 행정 발전에도 기여하고 싶습니다. 또한 체육인들이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글. 편집실

대한체육회는 지난 6월 16일, 제110차 이사회에서 신임 사무총장 임명 동의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신임 사무총장으로는 박춘섭 전 조달청장이 선임됐다.

박춘섭 사무총장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거친 예산 전문가로서

체육회의 현안인 예산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체육회의 행정과 살림을 2년간 도맡을 신임 사무총장을 만나 향후 행보를 물었다.





“

변화한 환경에서도
더 많은 사람이 체육을
즐기고 전문 체육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부터 솔선수범해
노력하겠습니다.
체육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이 함께 노력해
희망으로 가득한
체육 생태계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

Q. 사무처 운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인가요

대외적으로 대한체육회는 체육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체육 활동을 하도록 서비스하는 기관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기관들의 수용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무처 직원들이 업무에 임할 때 서비스 정신이 밑바탕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체육회 직원들이 즐겁게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체육회에 처음 출근한 날 전 직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고 싶은 직장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썼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직장이기 때문에 직장이 즐겁지 않으면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통해 모두가 즐겁게 일하는 직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Q. 올해는 「스포츠기본법」, 「스포츠클럽법」, 「체육인복지법」 이른바 스포츠3법 시행으로 스포츠가 법적 근거를 갖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갖췄습니다. 한편, 새 정부 국정과제에 체육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체육계 발전을 위해 추가적인 움직임이 필요해 보입니다.

체육계가 정책적인 면에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요

스포츠3법과 새 정부 국정과제에 스포츠 분야가 포함돼 있어, 향후 체육계 발전을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고 봅니다.

먼저, 「스포츠기본법」에 스포츠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있는데, 체육인이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에 체육인이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체육인들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 「스포츠클럽법」 제정 취지대로 대한민국 스포츠 생태계가 스포츠클럽 중심으로 개편되어 학교와 생활체육, 전문체육이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체육복지 증진을 위해 체육 관련 재정 확충, 은퇴 체육인 진로 지원, 체육인 공제회 설립 등이 이뤄져 체육인들이 더욱 안정된 환경에서 체육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올해 10월 스포츠계의 UN 총회로 불리는 국가올림픽연합회(ANOC)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준비하실 계획이신가요

이번 ANOC 총회에는 IOC위원장, ANOC회장단, 종목별 국제연맹(IF)회장 등 국제 스포츠계 주요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스포츠 역량을 세계에 보여주고 국제적인 위상을 높일 중요한 기회만큼 ANOC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회 개최 장소인 코엑스 내 회의장 등 충분한 공간을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회의 당일 원활하게 행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총회 기간에는 주요 인사에 대한 출입국, 숙박 등 관리와 창덕궁 등 문화체육시설 방문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회의 기간까지 코로나19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는다면 방역 조치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Q. 임기 중 반드시 지켜가고 싶은 신념과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저는 평생 공직에 종사했습니다. 공직의 기본 정신은 국민들께 낮은 자세로 서비스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점에서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도 국민들, 범위를 좁힌다면 체육인들께 서비스하는 마음가짐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이루고 싶은 목표는 대한체육회가 체육계의 말형으로서 그 역할을 더 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회장님 및 체육회 임직원들과 노력하는 한편, 유관 기관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함께 개선해 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종합청렴도 우수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임기 기간 동안 만들고 싶습니다.

Q. 임직원, 체육인, 독자 등 체육 관계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체육계를 둘러싼 외부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베이비붐 세대인 제가 태어날 때는 100만 명에 달하던 출생아가 지난해에는 25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로 인해 유소년·청소년 체육인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이 됐습니다. 변화한 환경에서도 더 많은 사람이 체육을 즐기고 전문 체육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부터 솔선수범해 노력하겠습니다. 체육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이 함께 노력해 희망으로 가득한 체육 생태계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SPORTS1**



글. 편집실 사진제공. 월드게임 홈페이지, 대한우수협회

월드게임은 국제월드게임협회(IWGA: International World Games Association)가 4년마다 개최하는 스포츠 행사로, 비올림픽 종목 선수단이 참가하는 국제종합경기대회이다.

‘2022 제11회 버밍햄월드게임’에서 우리나라는 8개 종목 38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다.

우리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며, 월드게임의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2022 제11회 버밍햄월드게임

버밍햄월드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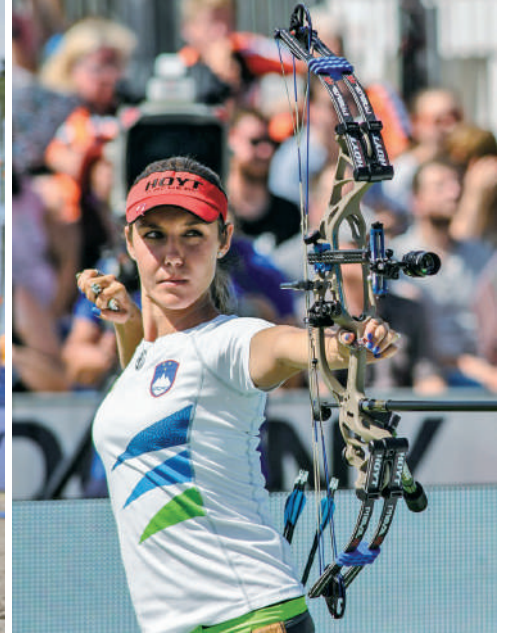
총 8개 종목

38명의 선수단 파견



1981년 미국의 샌타클래라에서 제1회 대회가 개최된 월드게임은 올림픽에서 채택되지 않은 종목을 겨루는 국제종합경기대회이다. 하계올림픽 다음 해에 개최되며, 코로나 19의 대유행으로 도쿄올림픽이 1년 미뤄지면서 제11회 버밍햄월드게임 역시 당초 계획됐던 2021년이 아닌 2022년 7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개최됐다. 제10회 대회였던 2017년 폴란드 월드게임 때는 27개 종목을 경기가 열렸으며, 102개 나라에서 3,000여 명의 선수단이 출전했다. 이번 월드게임은 34개 종목 100개국 3,6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에서 양궁, 당구, 볼링, 댄스스포츠, 체조, 핀수영, 수상스키-웨이크보드, 우수 총 8개 종목 38명(선수 25명, 경기임원 10명, 본부임원 3명)의 선수단이 출전했다. 그중 우수는 이번 대회 효자 종목으로 등극했다. 우수 남자 태극권 전능에서 유원희가 정위호세아왕(브루나이)을 불과 0.056점 차로 따돌리고 18.980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우리나라 우수 대표팀은 금, 은, 동메달 1개씩을 따냈다. 또한 핀수영 여자 짝핀 50m에서 최민지 선수와 핀수영 남자 표면 400m에서 윤영중 선수가 은메달을 땀다. 우리나라는 금 1, 은 3, 동 4개로 총 8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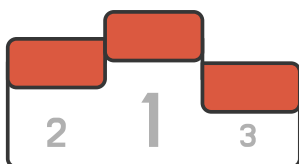
대한체육회, 우리나라 선수단의 선전과 안전을 위한 교육 실시

대한체육회는 6월 27일, 11회 버밍햄월드게임에 앞서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코로나19 등 각종 위험 요소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회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온·오프라인이 병행됐으며, 오프라인 교육으로 '스포츠안전·도핑방지·생활안내 교육'이, 온라인으로는 '스포츠윤리 런(Learn)' 홈페이지를 통한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한편,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은 7월 6일(수)에 출국해 우리나라 선수단을 격려했으며, IOC 관계자 및 국제스포츠기구 인사들과 스포츠 외교활동을 펼쳤다. **SPORTS1**

우리나라 선수단의 '2022 제11회 버밍햄월드게임' 출전 종목 및 인원

종목	임원	선수		합계
		남	여	
양궁	2	2	2	6
당구	1	1	1	3
볼링	1	2	2	5
댄스스포츠	1	1	-	2
체조	1	-	1	2
핀수영	2	3	5	10
수상스카·웨이크보드	1	1	-	2
우슈	1	2	2	5
본부임원	3	-	-	3
합계	13	12	13	38



세계태권도연맹 회원국

212 개국

세계태권도연맹(WT)은 지난 4월 20일,
인도양에 위치한 몰디브를 WT 회원국으로 승인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국기(國技) 태권도는
212개국의 회원국을 보유하게 됐다.
이는 국제경기연맹 회원국 중으로는 네 번째로 많은 수다.
태권도를 수련하는 사람은 무려 1억 명이 넘는다.
명실상부 세계적인 스포츠로 자리매김한 태권도가
더욱 발전해 세계 속에 우리나라를 알리는
매개체가 되길 바란다.

국제경기연맹 회원국 수



탁구

227개국



배구

222개국



육상

214개국



태권도

212개국



KSOC & SPORTS

— HERO OF GENERATION



역전의, 역전의, 역전의 스포츠

태권도 국가대표

이다빈

글·편집실

이다빈 선수에게는 '1초의 승부사'라는 타이틀이 따라붙는다. 도쿄올림픽 준결승전에서 경기 종료 1초를 남기고 세계 랭킹 1위의 비앙카 워크던 선수를 발차기로 쓰러뜨리던 순간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은메달을 목에 건 이다빈 선수에게 태권도는 '역전의, 역전의, 역전의 스포츠'라고 한다. 앞치락뒤치락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이다빈 선수의 경기 스타일이 그대로 드러나는 표현이다.

10년 가까이 늘 포디움에 섰던 선수의 정신력

이다빈 선수는 2013년 주니어아시아선수권을 시작으로 지난 10년 동안 유니버시아드, 그랜드슬램, 아시아선수권,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등 굵직한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두루 휩쓸며 10년 가까이 늘 포디움에 섰던 선수이다. 도쿄올림픽 은메달에 이어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2022 세계태권도연맹(WT) 월드태권도그랑프리'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근 부진을 겪은 터라 '자신감 회복'을 일차적 목표로 경기에 임했다지만 준결승, 결승 모두 2:0으로 완승을 거두었다. 특히 준결승전은 이탈리아 선수와 붙으면서 홈 관중의 압도적 응원 속에서 불리한 경기를 치러야 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태권도를 아주 좋아하고 응원 열기도 무척 높아요. 그랑프리 대회도 열기가 아주 뜨거웠어요. 경기 첫날 오전부터 관중석이 꽉 차는 것을 보며 이탈리아인들의 태권도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객석이 거의 하나가 된 것 같은 분위기더라고요. 저는 둘째 날 경기가 있었는데 첫날 관중들의 응원 열기를 지켜보면서 '분위기에 압도되면 큰일이다' 싶더라고요. 홈그라운드인 열기로 나를 잡으려고 한다면 나는 득점으로 확실하게 이기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덕분에 더 냉정하고 침착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도쿄올림픽에서 이다빈 선수가 보여준 스포츠 정신은 수많은 태권도 팬들의 뇌리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결승전 당시 금메달을 놓친 뒤의 행동이 많이 회자됐다. 아쉬움이 컸을 텐데도 경기 종료 직후 그는 환한 미소로 상대 선수 밀리차 만디치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물론 미리 준비한 퍼포먼스는 아니었다.

“솔직히 졌으니 속으로는 눈물 났죠. 그런데 '내가 보낸 그 시간을 다른 선수들도 똑같은 심정으로 보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와 다르지 않았을 그들의 고된 훈련 과정이 선수들의 발끝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상대 선수가 이긴 것은 저보다 더 간절할 마음이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존경심이 생겨 절로 엄지손가락이 올라갔어요.”



세계인의 스포츠로 자리 잡은 태권도

도쿄올림픽을 끝으로 밀리차 만디치 선수는 은퇴했기 때문에 앞으로 대회에서 다시 만날 가능성은 적지만 태권도를 사랑하는 선수로서의 동질감은 오랫동안 남았다. 이다빈 선수는 비단 도쿄올림픽뿐만 아니라 경기를 거듭할수록 외국 선수들의 기량이 눈에 띄게 향상되는 것 같다고 말한다.

“태권도가 이제 세계인의 스포츠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한 것 같아요. 관객들의 열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상대 선수들의 기량을 통해서도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나라 선수를 견제하지만, 예전처럼 ‘한국 선수와 붙으면 끝장이다’가 아니라 한국 선수를 이겨서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보겠다는 선수가 더 많이 늘어났어요.”

이다빈 선수는 이를 견제하고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자리를 지키려면 유럽 선수들의 장점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앞발 뒷발을 모두 사용하는 데 비해 유럽 선수들은 앞발 컨트롤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앞발을 잘 활용해야 경기가 잘 풀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이 어떤 훈련을 받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10년 이상 준비해서 국제대회에 나가지만 지금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외국 선수들은 대부분 주니어에서 이제 막 시니어로 넘어온 선수들이거든요. 훈련량으로만 따지면 우리보다 훨씬 적은데 도대체 어떤 훈련을 하기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실력을 키울 수 있을까 궁금해요.”

옆치락뒤치락 ‘짜릿한 승부’의 스포츠

이다빈 선수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다. 너무 좋아서 시작한 운동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태권도가 최고라고 말한다.

“태권도는 경기시간이 2분 3회전으로 다른 종목에 비하면 짧은 편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도 수없이 점수가 뒤바뀌며 끝나는 순간까지 ‘역전의, 역전의, 역전이 펼쳐지기 때문에 지켜보는 분들도 즐거울 것 같아요. 심지어 10점 이상 점수 차가 나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거든요.”

역전의 정점은 이다빈 선수다. 지난해 도쿄올림픽, 22 대 24로 패색이 짙던 준결승전에서 종료 1초를 남기고 세계 랭킹 1위 비앙카 위크던 선수를 발차기로 쓰러뜨리며 25-24로 역전승을 거뒀다. ‘1초의 승부사’라는 별명도 이때 생겼다. 상대 선수로서는 땅을 칠 일이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다빈 선수의 투지가 승패를 판 가름했다. 그래서 많은 이가 이다빈 선수의 경기 중 도쿄올림픽을 가장 인상적인 순간으로 꼽지만 정작 이다빈 선수가 꼽는 최고의 순간은 처음으로 ‘국가대표 선발전’을 치렀던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당시 ‘태권도 좀 하는 고등학생’ 정도로만





© 세계태권도연맹

알려졌던 터라 그가 국가대표선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런데 예상을 깨고 세 판 전 경기 RSC승(점수차 승리)이라는 대기록을 세운데다 그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니 선수로서도 의미 있는 순간임에 틀림없다. “저도 국가대표가 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경험을 쌓으며 배운다는 자세로 임했거든요. 전날 돼지우리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꿈도 꿔기 때문에 기분도 아주 좋았어요. 동생도 제가 돼지를 타고 날아다니는 꿈을 꿔다며 용기를 주더라고요. 심리적 압박도 없었고, 사기가 충만한 상태에서 정말로 행복한 마음으로 치른 경기였어요.”

“

태권도가 이제 세계인의
스포츠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한 것 같아요.
관객들의 열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상대 선수들의
기량을 통해서도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

태권도를 즐기는 정말 행복한 선수 그리고 팬들의 사랑

이다빈 선수는 선수로서 앞으로의 꿈을 묻는 질문에 ‘행복’을 언급했다.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이야기라며 자신의 꿈을 풀어놓았다.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입니다. 하지만 더 큰 꿈은 행복한 선수로서 선수 생활을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도쿄올림픽 전까지만 해도 태권도를 정말로 즐겼는데 주목을 받다 보니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지금은 ‘좋아서만 하는 것이 아닌’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올림픽을 끝낸 후에는 대표팀에서 내려와 태권도를 즐기며 행복한 선수 생활을 하는 모습을 팬들에게도 보여주고 은퇴하고 싶어요.”

주니어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냈기에 이다빈 선수를 아끼는 팬이 많다. 특히 도쿄올림픽 이후 이다빈 선수를 응원하는 팬들이 부쩍 늘었다.

“팬들에게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경기 결과가 늘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응원해주는 팬들에게 늘 고마움을 느끼며 경기에 임합니다. 경기장에서 팬들의 응원은 3년 훈련한 힘과 맞먹는 것 같아요.” **SPORTS1**

생활체육 활성화, 경제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

글. 이영임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경제학박사

최근 스포츠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기르는 여가 선택 수단을 넘어 국가와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성장했다.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선진 경제 강국 실현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생활체육 활성화는 어떤 경제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지 알아본다.

생활체육의 전기를 맞으며

퇴근길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신나게 자전거 페달을 밟는 직장인, 파크골프의 재미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어르신, 내일의 손흥민을 꿈꾸며 운동장에서 공과 하나가 된 어린이까지.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대면활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각종 스포츠 예능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는 생활체육의 전기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해이기도 하다. 우선, 2월부터 「스포츠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국민이 차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 즉 ‘스포츠권’이 법적으로 명문화되었다. 또한 5월에 출범한 새 정부는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 지원, 운동하는 국민에 대한 혜택 지원 등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스포츠 참여는 경제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쯤에서 '왜 국가가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스포츠를 하고 싶으면 각자 여건에 맞게 알아서 참여하면 되는 것 아닌가? 굳이 국가가 나서서 정책을 만들고 국민들이 스포츠를 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나? 이러한 물음에 대해 사람들은 저마다의 관점에서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경제학자가 내놓을 수 있는 답인 '생활체육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국민 1인당 연간 46만 원 의료비 절감

생활체육 활성화는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생활체육 참여로 건강해진 사람들이 만들어 낼 의료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효과일 것이다. 생활체육에 규칙적으로 참여하면 면역력 증진, 대사증후군 발병 위험률 감소, 대사질환 및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 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여러 차례 보고되고 있다.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의료비 절감, 질병 및 사망위험 감소로 인한 경제활동 참여 확대, 건강 증진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으로 정리된다. 그 효과는 1인당 연간 46만 원에 달한다(2007, 서울대 스포츠산업연구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만약 모든 국민이 생활체육에 참여한다는 가정 하에 이 결과를 경제활동 인구 전체에 적용한다면 국가 입장에서는 연간 약 10조 9,000억 원의 잠재적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고령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 차원에서의 의료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효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경제 효과만 약 70조 원, 무형의 정서적 가치까지

생활체육 참여는 필연적으로 스포츠 시설 이용, 강습 참여, 식사 및 교통비 등 지출을 수반한다. 2021년 스포츠산업 가계 지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가 1년 동안 스포츠 활동 참여에 지출한 금액은 평균 162만 5,000원에 달하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가계지출 규모는 무려 25조 4,414억 원에 육박한다(2021,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이 지출은 식음료업, 운송업, 숙박업 등 스포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파생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파급효과를 불러오게 된다. 스포츠 활동 참여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가 각각 46조 7,709억 원, 21조 5,547억 원 규모이며, 고용유발 효과는 13만 4,983명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된 바 있다(2022,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최근에는 기술 발전에 따른 웨어러블 기기의 대중화, 비대면 코칭 서비스 등 새로운 요소들이 생활체육에 꾸준히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파급효과는 더욱 다양한 산업에 보다 큰 규모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생활체육 참여로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정서적 가치 역시 경제적으로 측정해 볼 수 있다.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관적인 성취감, 기쁨, 안정감, 소속감 등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가치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으며 시장에서 거래되지도 않고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다르지만, 진술선호 평가법 중 하나인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등 적절한 방법론을 적용한다면 생활체육 참여에 따른 정서적 가치 역시 화폐가치로 환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국민의 스포츠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2021년 현재 60.6%에 머물고 있으며,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국민의 스포츠 참여는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어 생활체육의 경제적 효과는 아직 이목이 집중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생활체육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해 스포츠의 가치를 다양한 관점에서 모색하려면 국가와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는 「스포츠기본법」이 시행되고 스포츠진흥기본계획 수립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유롭게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민들 역시 자유롭게 평등하게 스포츠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스포츠권을 적극적으로 향유하기 위해 노력할 때, 스포츠의 가치는 새롭게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다. **SPORTS1**

사람은 어떻게 물에서 헤엄칠까?

수영에 담긴 과학 원리

글. 편집실

얼음을 띄운 음료 한 잔으로는 여름 더위를 물리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여름철이면 많은 사람이 바다나 수영장, 워터파크를 찾는 이유다.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그고 두통이 사라진다면 그곳이 지상낙원. 그런데 잠깐!
물놀이에도 과학 원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수영에 담긴 과학 원리를 알아보고 더 재밌게 물놀이를 즐겨보자.



물에 둥둥 뜨는 부력

수영은 물에 뜰 채 앞으로 나가는 행위인데, 물에 뜨려면 기본적으로 부력이라는 힘이 작용해야 한다. 부력은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고도 불리는데, 고대 그리스 수학자 아르키메데스에 의해 발견됐기 때문이다. 아르키메데스는 새로 제작된 왕관에서 순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밝히려는 명을 받았다. 단 왕관을 녹여서는 안 된다. 고민에 빠져 있는 그는 물이 가득 담긴 탕에 몸을 담그자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넘친 물의 양이 부피와 같음을 깨닫는다.

물속의 물체는 중력과 부력을 동시에 받는다. 물속에 잠긴 물체가 물로부터 받는 힘을 중력이라고 하고, 반대 방향인 위쪽으로 밀어 올리는 힘을 부력이라 하며, 물속 물체의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증가한다. 이렇듯 하나의 물체에 중력과 부력이 작용하면 물체는 더 큰 힘이 작용하는 쪽으로 움직인다. 즉,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부력보다 크면 물체는 물속에 가라앉고, 중력보다 부력이 크면 물체는 수면으로 떠오른다. 따라서 부력을 이용해 물체를 띄우려면 무게는 가벼워야 하고, 부피는 커야 한다. 부피가 커지면 비중이 줄어들고 물에 닿는 면적이 넓어져 부력을 받는 면적도 넓어지므로 더 쉽게 물에 뜰 수 있다. 즉, 튜브나 구멍조끼의 경우 무게는 가볍지만, 공기를 가득 넣어 부피가 커지므로 물에 쉽게 뜰 수 있다.

물 속 물체에 작용하는 힘

부력 < 중력

물체가 물속으로 가라앉는다.

부력 = 중력

물체는 어느 위치에도 있을 수 있다.

부력 > 중력

물체가 물 위로 뜬다.



2

몸을 앞으로 내보내는 추진력

부력의 원리를 활용해 물에 떠올랐다면 다음으로, 물살을 헤치고 앞으로 나가는 원리를 알아보자. 수영에는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 등 다양한 영법이 있다. 영법마다 동작이 다르지만, 팔과 손을 사용해 물을 끌어당기고 뒤로 밀어 추진력을 얻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밀어낸 힘만큼 추진력을 얻어 몸이 앞으로 나가는 것인데, 뉴턴의 운동 제3법칙인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해당한다. 작용 반작용은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작용하면 다른 물체도 힘을 작용한 물체에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을 작용한다는 법칙이다. 걸을 때 발로 땅을 밀어내는 작용에 대해 지면은 반대 방향으로 우리 몸을 밀어내는 반작용이 일어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대표 사례다.

뉴턴의 운동 제3법칙: 작용과 반작용

물과 같이 질량을 가진 물체는 밀어낸 만큼 되미는 힘이 생기는데, 이를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 한다. 두 힘은 방향이 다르지만 힘의 크기는 같다.



3

물과의 마찰을 줄이는 저항 감소

작용 반작용의 법칙으로 추진력을 얻더라도 빠른 속력을 유지하려면 몸의 형태를 유선형으로 만들고 신체를 직선 형태로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는 물과 마찰로 인한 저항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은 물론 잠영에서도 활용된다. 특히 잠영은 기존 영법에서 발생하는 저항을 최소화한 것으로, 수면 위보다 저항이 훨씬 적어 더 빨리 나갈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많이 사용됐다. 하지만 잠수 경기라는 비판으로 결국 최대 잠영 거리가 15m로 제한됐다.

한편, 수영 선수들의 예선 성적에 따라 4-3-5-6-2-7-1-8 레인으로 배정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도 저항의 원리가 숨어 있다. 물은 사람이 움직일 때 파동이 발생하고 그 파동이 선수들이 추진하는 힘에 반대 저항을 준다. 가장 가운데인 5번 레인에서 수영하면 물이 1, 8번 레인으로 퍼져나간다. 중앙에 있는 선수는 양옆에 있는 선수에게 물의 저항을 줄 수 있다. 1, 8번 선수는 한쪽으로는 물의 저항을 주지만 수영장 벽을 맞고 다시 자기 쪽으로 오기 때문에 물의 저항을 중앙에 있는 선수보다 많이 받는다. 그래서 수영 경기에서 3~5번 레인이 유리하다. **SPORTS1**

입수 각도에 따른 저항 및 추진력

물속에서 수영하는 동안 저항을 최소화하는 것 못지않게 입수 각도도 기록에 큰 영향을 끼친다. 전문가들은 30~40도를 이상적인 입수 각도로 본다.



입수 각도 30도 미만

신체와 물 표면의 접촉이 늘어나 저항이 커지고 속도가 저하된다.



입수 각도 40도 초과

신체가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이 약해지고 스트로크(Stroke) 연결이 어렵다.

글. 편집실

인공지능(AI)은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기술이 됐다. 가전제품에 설치돼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분에 맞춰 음악까지 들어준다. 스스로 운전하며 자동차를 이동 수단에서 생활의 공간으로까지 진화시켜 나가고 있다. 인간의 신체 활동을 기본으로 하는 스포츠 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선수의 운동 패턴 및 습관 등을 분석해 솔루션을 제안하는 코치부터 심판 그리고 경기 예측까지 그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코치, 심판 그리고 경기 예측까지

AI로 진화하는 스포츠



AI
코치맞춤형 코칭과
과학적인 훈련 계획 제공

‘AI 코치’가 이제는 낯설지 않은 시대다. 이들은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존재를 증명하며 합격점을 받고 있다.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프리스타일 스키 여자 공중기능 경기에 출전한 중국 선수 쉬몽타오는 완벽한 움직임을 선보이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 금메달을 따기까지 샤오아이스(Xiaoice)가 개발한 AI 심판 및 코칭 시스템 ‘관준(Guanjun)’이라는 코치의 역할이 컸다. AI 코치는 어떻게 훈련에 도움을 줄까. 먼저 선수의 모든 점프에 대해 국제 심판의 득점 기준과 일치하는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고 점수 감점 조치를 엄격히 적용해 전체 과정을 정량화한다. 이후 공중 및 착지 지원, 움직임 궤적, 신체 자세, 각도 및 높이와 같은 다차원 지표를 분석해 선수에게 참고사항을 제공한다. 또한 장기간 관찰한 선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점프 동작 등을 분석해 훈련 방향을 제시한다. 한마디로 선수 맞춤형 코칭과 과학적인 훈련 계획을 제공하는 것이다.

AI 코치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축구를 꼽을 수 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리드하는 유명 축구팀들은 이미 AI 코칭 시스템을 도입했다. 첼시는 2019년부터 러프버러대와 협약을 맺고 코칭 AI를 사용 중이다. 대한축구협회는 2021년 AI 자동 중계 카메라를 이용해 K4리그 전 경기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K4 팀들은 중계된 경기 화면과 파노라마 영상을 보면서 장단점을 분석하고 다음 경기를 준비할 수 있었다.

AI
심판심판 판정의 정확성 향상과
공정성 강화

2021년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야구에서 가장 예민한 투구볼 판정에 AI 심판을 시범 도입했다. 판정의 정확성 향상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야구의 투구볼은 정해진 기준이 아닌 타석에서 타자에 따라 스트라이크 존이 바뀌기 때문에 판단이 쉽지 않다. AI 심판은 머신러닝으로 정확한 스트라이크 존을 그리고, 공의 궤적을 읽기 때문에 정확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AI 심판은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AI 심판을 최종 판단에까지 활용하려면 공정함을 위한 엄격한 외부 접근 통제 등 해커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체조 부문의 AI 심판은 이보다 앞선다. 2018년 11월 국제체조연맹(FIG)과 일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후지쓰는 2년여에 걸쳐 개발한 AI 기반의 기계체조 판정시스템을 선보였다. 이 AI 판정 시스템은 2개의 3차원(3D) 레이저 센서가 초당 200만 회의 데이터를 쏘 선수의 움직임을 기록한 뒤, 이를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비교해 기술의 성공 여부와 가감점을 판단한다.

AI
예측승패는 기본!
예상 골 수까지 적중

AI는 스포츠 결과를 예측하기도 한다. 경기의 승패는 수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확하고 세밀한 분석과 전략에서 좌우된다. AI 기반 축구경기 예측 사이트인 ‘스포츠AI’는 전 세계 주요 축구 관련 사이트에서 수집한 리그·팀·선수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경기력과 팀 전력, 전문 사이트 평가 등 3가지 지표를 분석해 승패를 예측한다. 놀라운 것은 해당 경기에서 나올 골의 수까지도 예측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스포츠AI는 2022년 4월 20일 열린 리버풀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경기 결과를 정확히 맞춰다. 경기에 앞서 스포츠AI는 리버풀의 승리와 총 득점은 3~4골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도 경기 결과는 리버풀의 4대 0 승리로 끝났다. 단순한 우연이 아닐까? 그렇지 않다. 유로 2020의 경우 71.4%,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예선은 89.5%의 승패 적중률을 기록했다. **SPORTS1**

솔바람 타고 솔솔~ 산을 오르는 자전거!

MTB 동호회, 수지자전거마을

글. 편집실

울퉁불퉁, 구불구불 산길 위를 자전거가 달린다. 큼직한 돌부리를 만나도, 가파른 언덕길을 마주해도 걱정 없다. 두 다리를 이용해 페달을 구르는 속도를 조절하면 그뿐. 숲은 언제나 자신의 품으로 들어온 라이더를 반겨준다. 그 맛에 푹 빠진 사람들, MTB 동호회 '수지자전거마을'을 찾았다.

Q 간단한 동호회 소개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수지자전거마을은 주로 경기도 용인 수지를 중심으로 인근의 분당, 광주, 서울 등에 거주하는 회원들이 함께하는 산악자전거(MTB) 동호회입니다. 불곡산, 광교산, 대지산, 법화산 등에서 산악라이딩을 즐기고 있죠. 그 밖에도 땅끝마을(24시간) 라이딩, 4대강 국토 종주 등 다양한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카페 수지자전거마을(cafe.daum.net/sujibike)에서 '힐소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카페지기를 맡고 있는 홍정욱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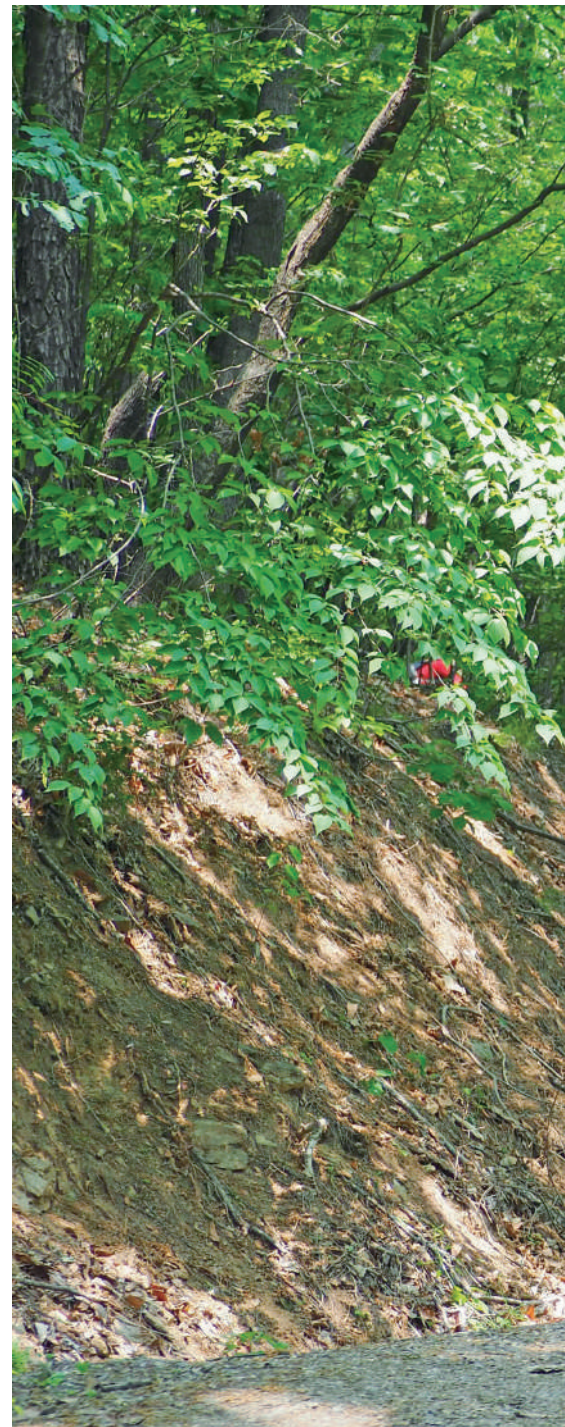
Q 처음 동호회를 만들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현재 활동하시는 회원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우리 동호회가 처음 만들어진 건 2005년인데, 당시 MTB는 아주 생소한 장르였어요. 통기타와 부드러운 음색으로 주옥같은 노래를 불러주던 가수 김세환 씨가 MTB 마니아인데, 우리나라에 MTB를 알리는 데 많은 역할을 했죠. 김세환 씨가 산에서 MTB 기술을 가르쳐주시던 게 생각납니다.

현재 전체 가입회원이 6,080명이고 우수회원 270명, 정회원 165명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도 고등학생부터 75세 어르신까지 다양하고요. 직업과 나이에 상관없이 자전거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하고 있죠.

Q 회원은 어떻게 뽑고 있나요? 특별한 자격 조건이 있는지요

다음 카페 수지자전거마을을 통해 회원 접수를 받고 있어요. 가입에 필요한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자전거를 사랑하고, 사람들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문이 활짝 열려 있죠. 저 같은 경우 MTB에 입문할 때 들어 왔는데 지금은 하루에 400km를 달리고 있네요.



Q 모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이 정기모임일이에요. 이밖에도 평일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을 위한 '화요 라이딩'과, 직장인들을 위한 '화야라(화요일 산악 위주 야간 라이딩)'와 '수야라(수요일 도로 위주 야간 라이딩)' 등을 운영하고 있죠. 또 토요일은 싱글(산악 임도)과 도로팀으로 번개도 운영해요. 정규 번개 라이딩이 없을 경우, 누구라도 다음 카페에 번개 공지를 올려서 탈 수도 있습니다.



Q 운동, 혹은 생활체육으로써 산악자전거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안전한 활동을 위해 어떤 점을 신경 쓰고 있나요

MTB의 가장 큰 매력이라면 자동차로 갈 수 없는, 걸어서는 너무 오래 걸리는 좀 더 먼 거리를 자연과 더불어 호흡하며 운동할 수 있다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MTB를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잘 포장된 길을 달리는 게 아니니 위험 요소는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헬멧과 보호대를 착용하고, 안전수칙만 지키면 크게 다칠 일은 없어요. 오히려 속도를 즐기는 사이클보다 안전하죠. 우리 동호회는 산악 라이딩을 하기 전 반드시 안전 장비를 철저히 착용합니다. 또 초보 라이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 두었죠.



Q 혼자가 아닌 동호회 활동을 통해 얻는 장점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수지자전거마을 회원들은 정말 친목이 두터워요. 라이딩을 하지 않는 날에도 연락하며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죠. 또 자전거를 좋아하는 만큼 방방곡곡 안 가 본 곳이 없을 정도라서 전국의 유명 라이딩 코스는 물론 볼거리와 먹을거리 등에 대한 정보도 공유해요.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이기에 땅끝마을도 가고, 각종 대회도 출전할 수 있고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운동을 하는 것, 이것만큼 행복하고 좋은 일이 또 있을까요?

Q 수지자전거마을 동호회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다양한 사람이 모여 활동하는 동호회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즐기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호회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랑하고 다닐 만큼 훌륭해요. 선수급 회원도 처음 입문하는 회원들을 위해 속도를 조절하며 라이딩이 끝날 때까지 함께하거든요. 그래서인지 수지자전거마을 회원들은 초보자도 금방 선수가 됩니다. 실제로도 각종 MTB 대회에서 회원들이 거둔 성적은 전국에서 입소문이 자자할 정도예요.





‘수지자전거마을’을 소개합니다

카페 및 온라인 활동
cafe.daum.net/sujibike

동호회 조직일
2005년 9월

동호인 수
6,080명

모임 주기
번개 모임: 매주 화, 수, 토
정기 모임: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비정기 모임: 각종 번개 모임

대회 혹은 연례활동
280렐리, 화천DMZ대회,
땅끝마을라이딩, 춘천라이딩, 강릉라이딩,
강원도 5개령라이딩 등등

Q MTB에 도전하고 싶지만 가격 등에 대한 부담으로 망설이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또 초보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라이딩 코스가 있다면 어디인가요

일반 자전거보다 가격이 높은 편이어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몇 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이 넘는 정도로 가격대가 다양해서 초보인 분들은 자전거를 고르는 게 쉽지 않고요. 이럴 때 동호회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면 자신에게 맞는 자전거를 고르는 법부터, 중고 자전거 사이트를 이용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임도 및 산악에 익숙하지 않은 MTB 라이딩 초보자라면 경기대에서 광고호수공원을 잇는 여우숲길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10km 정도로 거리도 부담되지 않고, 잘 정비되어 있죠. 물론 경치도 좋고요.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로 인해 수지자전거마을의 많은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빨리 정상화 돼서 함께 투어도 자주하고, 각종 대회에도 참석하고 싶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이 지속될 수 있도록 회원들과 자주 소통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자주 만들고 싶습니다. **SPORTS1**





체육교육의 미래적 가치를 고민하다

대전 한밭고등학교

글. 편집실

대전광역시 서구에 자리한 한밭고등학교는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인 1983년 개교했다. '정도(正道)의 교훈 아래 '열린 마음, 높은 이상, 신나는 배움터'를 목표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체육교육의 미래적 가치를 고민하는 한밭고등학교의 이규태 교사를 만나 체육교육 중점학교 운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Q 한밭고등학교를 소개해 주세요

한밭고등학교는 1983년에 개교한 남녀공학 공립 고등학교입니다. 800여 명의 학생들과 100여 명의 교직원들이 함께 '정도(正道)'의 교훈 아래 '열린 마음, 높은 이상, 신나는 배움터'를 실현해 나가고 있죠.

우리 학교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장려하며 한두레 주제탐구마당, 세계시민교육, 독서 활동, 동아리 활동, 1인 1주제 탐구, 창조융합수업 등의 프로그램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를 진행한 시기는 언제인지, 그간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는지 말씀해주세요

우리 학교는 2019년부터 체육교육과정 특성화(중점)학교를 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학급인 3학년 5반을 담당하는 교사 이규태입니다. 우리 학교의 체육교육 특성화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체대입시 종목을 기본으로 하고, 실내 및 야외 육상 훈련을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청 코칭 지원 사업을 활용해 개인별 학습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죠.

진로를 위한 교육 과정 외에도 볼링프로 특강, 골프 특강, 학생 1인 1종목을 위한 배드민턴 레슨, 황인범 선수 특강, 탁구 특강, 스포츠 마사지 및 테이핑 자격증 과정 수료, 야구장 견학 및 체험활동, 체육과 메이커 교실 융합수업 등 다양한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당교사들은 틈틈이 여러 전문가를 통해 컨설팅을 받으며 학생들을 위한 교과를 마련하고 있죠.

Q 학년별 체육교육과정 특성화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체육교육과정 특성화를 위해 먼저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점학급에 참여할 수요자를 조사한 뒤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심사, 실기평가, 면접을 통해 최종 인원을 선발해 2학년부터 체육 진로를 위한 교육을 시작합니다.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학급은 학생선수 1명, 일반학생 14명으로 구성되는데, 다른 일반계 학생들이 선택과목에 참여하는 시간에 체육전공실기 기초, 스포츠 경기 체력, 체육전공실기 심화, 스포츠 경기분석 등의 전공과목을 공부하죠. 3학년까지 한 주에 평균 6~10시간 정도의 체육 수업이 진행되어 학교교육만으로도 원하는 곳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Q 체육 중점 수업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우리 학교는 체육 프로그램 외에도 학생들이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스포츠 마사지, 족구 심판 양성 과정, 수영 자격증(라이프가드) 취득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필기·실기 시험에 통과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자격증을 따면 대학뿐 사회에 나가서도 활용할 수 있어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Q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인가요

학생들이 학교에 오는 걸 매우 즐겁게 생각합니다. 1차 서류심사, 2차 실기평가 및 면접 등을 거쳐 선발된 학생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참여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높은 성취감을 느낍니다. 교사들에 대한 신뢰도도 높고요. 실제로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대부분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물론 적응하기 힘들어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런 학생들조차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차츰차츰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년 이상을 같은 반에서 운동하고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Q 학교 입장에서 생각하는 학교체육활성화 프로그램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학생들이 체육교육을 통해 다른 학교에서 누릴 수 없는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체육교육을 받음으로써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매우 큰 장점입니다. 또한 몸을 움직이는 만큼 학생들의 건강 및 자기 관리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Q 체육교육과정 특성화 교육을 진행하시며 가장 크게 중점을 두시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저는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좋은 대학교를 가는 것보다 바른 인성을 가진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사 잘하기, 타인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기 등 가장 기본적인 예절부터 잘 지켜야 함을 강조하죠. 인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오래 살아남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성을 갖춘 체육인을 양성함으로써 체육계에 남아 있는 폭력 문화 등을 바꾸어 나가고 싶습니다.



Q 학교체육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혹은 인상적인 순간은 언제였나요?

매 순간순간이 뜻깊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 중 하나는 축구 국가대표 황인범 선수가 진행한 특강이었습니다. 같은 고향 출신 스포츠 스타의 특강에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황인범 선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대학 입시와 상관없더라도 학생들이 운동 자체를 즐기며 참여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무척 보람 찼고요.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바른 인성 함양, 예의바른 학생으로 점차 변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즐겁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해주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자기 인생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게 곁에서 힘이 되고 싶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앞으로 한밭고등학교는 전문교과를 학교 특색에 맞게 조정하고 2학년은 진로, 3학년은 진학에 맞춰 체육 중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강사비에 집중된 예산을 설명회, 진로·진학 프로그램, 체육 연계 교육비, 연수비 등과 같은 비교과 영역에 분배해 더욱 다양한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체육중점학교의 긍정적 교육 효과에 대해 널리 알리고, 체육진로의 미래적 가치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싶습니다. **SPORTS1**





글. 편집실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스포츠 활동이 늘어나면서 스포츠웨어 시장이 다변화했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운동 과정이나 전후 모습을 SNS에 인증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스포츠웨어의 기능성 외에도 스타일을 중요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운동복의 기능성과 일상복의 편안함에 세련미를 더한 애슬레저룩이 주목 받고 있다.

일상으로 들어온 스포츠웨어 애슬레저룩(Atheleisure look)

스포츠웨어와 일상복의 경계를 허문 애슬레저룩은 코로나19 이후, MZ세대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애슬레저 시장 규모는 2016년 1조 5,000억 원에서 2021년 3조 원으로 5년 만에 2배가량 커졌다. 전문가들은 건강에 관심을 두고 운동을 즐기는 연령대가 꾸준히 늘고 있어 애슬레저룩의 인기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레저 활동과 일상 전반에서 폭넓게 착용되고 있는 애슬레저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출근 복장까지 영역 확장한

레깅스 패션

애슬레저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운동보다 일상에 더 포커스를 맞춘 스포츠웨어도 등장하고 있다. 짐웨어로 시작해 가벼운 외출이나 홈웨어 목적으로 꾸준히 인기를 끌던 레깅스 패션은 최근 영역을 더욱 확장하고 있다. 관련 업체들은 기존 레깅스 핏이 아닌 조거핏, 슬랙스핏, 플레어핏, 바이크팬츠 등 목적에 따른 핏을 지닌 제품을 선보이며 다양한 수요를 잡고 있다. 또한 출근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레깅스를 출시하는 등 스포츠와 일의 경계를 허무는 '빅블러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MZ세대 유입으로 캐주얼화한

골프웨어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야외로 나온 젊은 세대가 골프장을 찾기 시작했다. 지난 6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말 국내 골프 인구는 515만 명 수준으로, 2017년 386만 명 대비 약 33% 증가했다. 그중에서 20·30대 골프 인구는 전년 대비 35% 늘어난 115만 명으로 추산된다. 새롭게 유입된 20·30대 골퍼들이 의상에 투자하면서 골프웨어의 주 소비층으로 떠올랐다.

‘골린이(골프+어린이)’의 등장으로 시장 규모가 확장되고 MZ세대가 ‘큰손’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골프 브랜드들은 이들의 취향에 맞춘 디자인을 제품에 반영했다. 이후 골프웨어는 캐주얼 성격이 강한 일상복 느낌으로 바뀌었다.



테니스를 치지 않아도 입고 싶은

테니스웨어

골프웨어 열풍은 테니스웨어로 이어졌다. 테니스는 골프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진입 장벽이 낮아 빠르게 퍼지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기능성은 물론, 일상복으로서의 편안함에 세련된 디자인까지 더한 제품들이 출시된다는 것이다. 삼성패션연구소는 2021년 말에 펴낸 <2022년 패션 시장 전망 및 2021년 패션산업 10대 이슈>에서 “골프웨어와 유사한 스타일을 보이는 테니스웨어는 복장 측면에서 골프보다 라이프스타일로 접근하기 쉽다”며 “테니스에 기반한 브랜드들이 주요 캐주얼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방증하듯 테니스 관련 시장의 성장세는 가파르다. SSG닷컴에 따르면 2022년 1~3월 테니스용품의 전체 매출은 2021년 같은 기간보다 210%가 증가했다. 더불어 다양한 패션 업체들이 서둘러 테니스웨어 라인을 신설하고 있다. **SPORTS1**



소통+영상+커뮤니티, 11만 팔로워를 보유한 대한체육회 페이스북

글. 편집실

대한체육회 페이스북(www.facebook.com/KoreaOlympic) 구독자가 11만여 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소통 + 커뮤니티 + 영상 보기 등 스포츠 관련 종합 채널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놓치기 아까운 스포츠 정보를 척척 전해주는, 대한체육회 페이스북 인기 소식들을 살펴볼까요?



오늘 혹시 내 생일?

선물이 팡팡!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알찬 정보를 알아서 척척 전해주는 것도 고마운데, 선물까지?
대한체육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동안 스포츠 상식이 쌓이는 초성퀴즈 풀기,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자랑하는 문장 완성하기, 나만의 노하우 공유하기 등 톡톡 튀는 아이디어 가득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죠. 아이스크림 교환권, 음료·빙수 쿠폰 등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물도 구독자분들이 엄청 좋아해주셨어요.
최근에 진행한 '나에게 올림픽이란 _____이다' 이벤트는 댓글이 400개가 넘게 달렸답니다. 대한체육회가 또 어떤 이벤트를 준비할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팔로우해 볼까요?



페이스북 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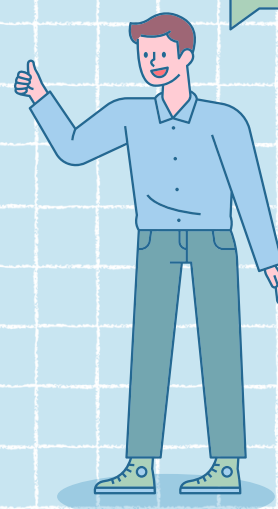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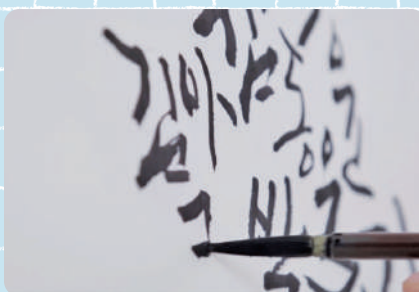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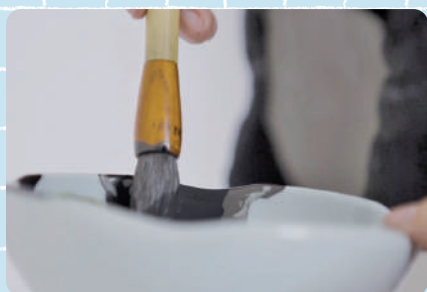


<https://www.facebook.com/KoreaOlympic>



가볍게 보는 짧은 영상, 긴 여운 페이스북 와치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영상을 유튜브로 보지, 왜 페이스북으로 봐?”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유튜브 영상과 페이스북 영상은 별개입니다. 유튜브가 마음먹고 골라보는 영상 채널이라면, 페이스북 와치는 가볍게 보는 짧은 영상 채널이죠. 대한체육회 페이스북 와치 영상들은 1분 내외로 짧지만, 쉽게 접할 수 없는 스포츠 관련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선택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영상을 보여준다는 장점도 있죠. 최근에는 국가대표 브레이킹 선수들의 영상과 팀코리아 NFT 강병인 작가 콜라보 디지털 아트 영상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생활 속 자투리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싶은 영상을 찾고 있다면 지금 당장, 대한체육회 페이스북 와치를 살펴보세요. *SPORTS1*



무더운 여름, 슬기로운 운동 가이드

글. 편집실

여름철 적절한 운동은 더위로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하지만 다른 계절과 달리 열사병, 탈수, 탈진 등의 온열질환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몸의 이상 현상과 대처법을 알아본다.

여름 운동 수칙 ①

1시간 이내로, 평소보다 20% '살살'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해 몸이 지친 상태에서 격한 운동을 할 경우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된다. 그렇다고 운동량이 부족하면 피로가 누적되고 자칫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운동 강도와 시간을 조절해야 한다.

여름에는 실내 운동이 좋으며, 실외 운동을 할 경우 태양이 강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피해야 한다. 또한 운동 시간과 강도에 대한 욕심도 버려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번 운동할 때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하고, 30분마다 10분 정도 휴식을 취할 것을 권한다. 운동 강도도 평소보다 20% 낮추는 것이 좋다.

적절한 운동 시간과 강도

한번 운동에 1시간 이내, 장시간 운동 시 30분마다 10분 휴식!

여름 운동 수칙 ②

충분한 준비운동, 혈령한 복장은 기본!

여름철에는 평소와 동일한 양의 운동을 하더라도 심장박동수와 체온이 많이 상승해 쉽게 피로해진다. 따라서 본격적인 운동 전 신체의 적응을 위해 낮은 강도에서 스트레칭이나 체조 등의 준비운동은 필수다. 이러한 준비 과정은 평상시 수행하는 운동량이나 강도를 쉽게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또한 땀 흡수와 통풍이 잘 되는 소재의 운동복을 입는 것이 체온 조절에 훨씬 좋다.

본격적인 운동 전 충분한 준비

혈령한 옷차림으로, 낮은 강도에서 스트레칭이나 체조로 준비운동 실시!



여름 운동 수칙 ③

충분한 수분 보충은 필수!



여름철 운동은 평소보다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수분 보충에 신경 써야 탈수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 땀을 과도하게 흘리면 체내 수분과 함께 전해질과 비타민이 빠져나가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근육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은 온도가 5도일 때,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보다 15~20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적당량을 마시는 것이 섭취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최근에는 전해질과 탄수화물을 결합해 운동 효과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스포츠 음료가 출시되고 있다. 단 포도당, 과당 등 단당류가 포함된 스포츠 음료는 위에서 비워지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운동 시 섭취하는 수분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올바른 수분 섭취 방법!

5도 정도의 물, 한번에 많은 양보다는 15~20분 간격으로 섭취!

여름 운동 수칙 ④

몸의 이상반응, 제대로 알고 즉각적으로 대처

일사병은 높은 온도에 장시간 노출돼 몸 밖으로 열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하고 체온이 37~40도까지 높아지는 질환이다. 심박동이 빨라지면서 어지럼증과 두통을 동반하며, 구토, 복통 등이 나타나고, 심하면 실신하는 경우도 있다. 열사병은 온도가 높고 밀폐된 공간에 오래 머물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발작·경련·의식 소실 등과 함께 중추신경계 기능 이상이 나타나는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할 수 있다.

여름철 운동 시 어지럽거나 자주 갈증을 느낀다면 무조건 쉬어야 한다. 온열질환은 아무리 경증이라도 한번 발생하면 재발하기 쉽다. 힘들지 않아도 30분에 한 번씩 그늘에서 쉬고 이온 음료 등을 마셔준다. 특히 열사병 환자를 발견하면 우선 환자의 옷을 벗기고, 찬물·얼음·알코올 마사지를 통해 체온을 낮춰야 한다. 환자가 의식이 없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시원한 바람을 쏘이면서 신속히 병원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SPORTS!**



온열질환 증상과 대처법!

약간 어지럽거나 잦은 갈증 시, 무조건 그늘에서 휴식 취하며 수분 섭취

여기 어디? 힐링 걷기 명소 제주!

글. 편집실

제주도는 올레길, 둘레길, 숲길 등
힐링 걷기 코스가 다양하다. 그중 피톤치드 가득한
비자림숲과 '바다멍'으로 주목 받고 있는
협재해수욕장 해안산책로를 소개한다.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해 줄 힐링 걷기 시작!

천년의 비밀을 간직한 숲길 비자림숲



비자림숲은 500~800년생 비자나무 2,800여 그루가 자생하는 숲이다. 제주도에서 처음 생긴 삼림욕장이며, 단일 수종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이곳은 '천년 숲'으로 불리는데, 숲의 가장자리에 뿌리 내리고 있는 할아버지 비자나무 때문이다. 무려 800살을 훌쩍 넘겼으며 키는 14m, 가슴둘레 6m에 달한다. 비자나무 외에도 나도풍란, 풍란, 콩짜개란, 흑난초, 비자란 등 희귀한 난과식물의 자생지이기도 하다.

녹음이 짙은 비자림숲 입구에서 들어서면 한여름에도 기분 좋은 상쾌함이 낮을 간지럽힌다. 피톤치드를 가득 머금은 산책길을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끼게 되는데, 삼림욕은 혈관을 유연하게 하고 정신적·신체적 피로 해소와 인체의 리듬을 되찾아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화산송이가 깔려 있는 탐방로는 비가 오는 날에도 미끄럽거나 질퍽하지 않을 뿐더러, 맨발로 걷기에도 좋다.

📍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비자숲길 55

☎ **문의** 064-710-7912, www.visitjeju.net



가슴 속에 스며든
에메랄드빛 바다
협재해수욕장
해안산책로



제주시 한림읍에 자리한 협재해수욕장은 제주올레 14코스의 일부다. 금능해수욕장과 이웃해 있는데, 두 길을 잇는 해안산책로는 두 사람이 빗겨서 지나갈 정도로 좁지만 혼자서 바다를 보며 걷기에는 넉넉하다. 살방살방 걸으며 멍 하니 바다를 바라보고 있자면 에메랄드빛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제주 바다가 가슴 속까지 시원하게 스며든다. 올레길 14코스 해변끝까지 걸으면 약 1km 정도로 가볍게 걷기에 안성맞춤.

바다 앞에는 <어린 왕자> 속 보아뱀을 삼킨 코끼리 그림 모양의 '비양도'가 있다. 비양도와 바다 위로 떨어지는 석양은 이곳에서 놓칠 수 없는 또 하나의 장관이다. 협재해수욕장의 또 다른 특징은 백사장. 경사가 완만하고 수심이 얕아 썰물 때면 조개껍질이 많이 섞인 은 모래빛 백사장이 바다를 향해 끝없이 이어진다. 해변 주변으로는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맛집과 카페가 여럿 자리하고 있어 멋진 경치를 바라보며 식사할 수도 있다. **SPORTS1**

📍 **위치**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2497-1

☎ **문의** 064-728-3981, www.visitjeju.net

2022학년도 7월 SPORTS1 모의고사 문제지

도전! 나도 Sporter

스포츠와 일반상식 영역

<스포츠원> 7월호는 잘 읽었나요? 우리나라 체육계를 이해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KSOC 모의고사'를 통해 다시 한번 독자분의 이해를 돕고,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모든 정답은 <스포츠원> 7월호에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1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등에 대한 포상금과 의료비 및 장학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 | |
|----------|----------|
| ① 체육인생활법 | ② 체육인복지법 |
| ③ 체육꿈나무법 | ④ 스포츠기본법 |

2 국제월드게임협회(IWGA)가 4년마다 개최하는 행사로, 비올림픽 종목 선수단이 참가하는 국제종합경기대회입니다. 하계 올림픽 다음 해에 개최되는 이 대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 | |
|----------|---------|
| ① 비올림픽게임 | ② 게임월드 |
| ③ 월드게임 | ④ 아시안게임 |



2022학년도 7월 SPORTS1 모의고사 문제지

3 산악 지형용 자전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로드바이크가 포장된 도로를 주 무대로 삼는다면, 이 자전거는 말 그대로 바위, 자갈, 나무뿌리 둔덕 등이 즐비한 산길을 무대로 하죠.

- ① MTB
③ NBA

- ② MBC
④ VIP

4 높은 온도에 장시간 노출돼 몸 밖으로 열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하고 체온이 37~40도까지 높아지는 질환입니다. 심박동이 빨라지면서 어지럼증과 두통이 구토 등이 동반되며, 심하면 실신까지 하는 질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① 일사병
③ 식중독

- ② 더위병
④ 열사병

문제 해결

TIP

2번 힌트

국제월드게임협회

주최 기관 이름 안에 정답이 보여요!

3번 힌트

Mountain Terrain Bike

위의 문장을 줄이면?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정답 제출하기

QR코드 스캔 후 퀴즈 정답을 제출해주세요.

퀴즈 정답을 맞히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8월 중으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2022년 7월호 정답 제출 마감일: 2022년 8월 12일)

6월호 정답자

이*철(7436), 홍*욱(3940), 홍*문(3060), 정*찬(9958), 설*해(8745),
김*세(1253), 김*길(0038), 홍*석(5200), 최*윤(5591), 손*희(4073)

SPORTS1 NEWS

대한체육회

창립 102주년 기념식 개최



대한체육회는 7월 13일 창립 102주년을 맞이해, 12일 오후 2시 서울 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에서 '대한체육회 창립 10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국회 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채익 위원장,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정행 명예회장, 역대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해 회원종목단체장, 시도체육회 부회장 등 체육인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체육회 홍보대사인 김완태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춘섭 사무총장의 경과보고, 정현숙 한국여성탁구연맹 회장의 조선체육회 창립취지서 낭독 순으로 이어졌다. 이기흥 회장은 기념사를 전했고, 조용만 차관과 이채익 위원장은 축사를 맡았다.

또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체육 선구자들의 업적을 기리고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체육유공자 15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으며, 대한체육회 모범유공직원 12명에게 각각 표창장과 재직기념패를 전달했다.

이기흥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체육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오신 선배 체육인을 비롯한 체육 가족 여러분과 정부의 지원, 우리나라 스포츠에 대한 국민 모두의 성원이 있었기에 스포츠 강국의 위상 정립이 가능했고, 그간의 노고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며 “대한체육회는 새로운 체육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는 혁신과 노력으로 위대한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Re:Fresh 체육대회 열려



대한체육회는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연기 등으로 저하된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7월 11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이하 진천선수촌) 오류관에서 '국가대표 Re:Fresh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체육대회는 국가대표 사기 진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5월 국가대표 가왕선발전에 이어 개최된 행사다. 진천선수촌에 입촌 종목 외에도 촌의 훈련, 비소집 종목을 포함해 30종목 700여 명의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가 참가했다. 또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해 회원종목단체 임직원들도 참가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유인택 선수촌장은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선수들이 교류하고 단결해 더욱 즐거운 선수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기를 올려 내년 항저우아시안게임 등에서 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기회를 자주 만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종합청렴도 2등급 목표로 청렴·반부패 정책 추진



2022 JULY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가 '행복한 스포츠로, 미래를 여는 체육회'라는 비전하에 2022년도 청렴·반부패 정책을 추진한다. 대한체육회는 2020년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4등급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3등급을 받았다. 올해는 평가제도가 종합청렴도 평가로 개편된 만큼 종합청렴도 2등급을 목표로 청렴·반부패 정책을 강도 높게 실천할 계획이다. 이에 '반부패·공정 개혁 달성, 신속하고 적극적인 부패차단, 국민 목소리 기반 공감하는 청렴문화 확산'이라는 3대 전략을 세우고, 12대 중점과제와 29개의 세부 과제를 확정했다.

2022년 회원종목단체장 간담회 개최



대한체육회는 7월 4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체육단체 간 적극적인 조직운영 연계 및 행정교류 기반 확립을 위한 '2022년 회원종목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21년 회장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회원 종목단체 회장 60여 명을 대상으로 개최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2년 만에 열린 만큼 체육계 중점과제 및 국정과제 추진 경과 소개, 대한체육회 주요 현안 안내, 대한체육회장 주재 회원종목단체장 간담회 등 종목단체장의 체육행정 전문성 함양과 유관기관 간의 소통 강화에 역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대한체육회는 주요 현안으로 평창동계훈련센터 및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건립 추진 상황, 2022년 스포츠인 종합 교육계획, ANOC 서울 총회 추진 상황,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최, 승부조작 방지 사업 추진 현황, 스포츠 3법 제정 현황 등 핵심 사업에 대해 소개하며 대한민국 체육계 발전을 위한 체육단체 간의 화합과 단결을 요청했다.

2022년 학교운동부지도자 워크숍 개최



대한체육회는 7월 14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 1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2년 학교운동부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해 학교운동부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의견 수렴 및 논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학교운동부지도자위원회를 구성한 32개 회원종목단체의 초·중·고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특히 체육계 국정과제 및 대한체육회 주요 현안 공유, 학교운동부지도자 간담회, 국가대표선수촌 현장 견학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참가 지도자들과의 소통은 물론 지도자들의 체육 전문성 향상을 가능하게 했다.

대한체육회는 주요 현안으로 평창동계훈련센터 및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건립 추진 상황, 2022 ANOC 서울 총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승부조작 방지 사업 등 핵심 사업들을 참가 지도자들에게 공유했다. 아울러 간담회 시간에는 학교운동부 지원 강화 및 발전 방안, 학교체육 정책 현안 등에 대해 여러 지도자들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국가대표선수촌 현장 견학 시간에는 참가 지도자들이 본인의 지도 종목이 포함된 다양한 훈련 시설들을 탐방함으로써 국가대표선수촌의 운영 및 국가대표 육성 현황을 직접 체험하고 훈련 지도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

SPORTS1 NEWS

시도체육회

전국사도체육회장협의회 진천국가대표선수촌 격려금 전달

전국사도체육회장협의회는 6월 13일 진천선수촌을 방문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유인택 진천선수촌장을 비롯한 대한체육회 관계자와 함께 국가대표선수단에 격려금 전달 및 체육단체 운영 개선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협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국위선양을 위해 휴가까지 반납하며 구슬땀을 흘렸던 국가대표선수들이 항저우아시안게임 연기 등으로 저하된 사기 진작 차원에서 격려금을 전달했다.

한편, 전국사도체육회장협의회는 민선 1기 지방체육회 출범과 함께 17개 시도 체육회장들의 협의체로 시작된 체육단체로 245개 지방체육회의의 사소통과 정책 건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전라북도체육회 체육교류 협약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와 전라북도체육회가 6월 20일 제주체육회관에서 체육 발전을 위한 유기적 연대를 확립하기 위한 업무협약(체육교류)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도의 체육 발전을 넘어 한국 체육 발전을 위해 협력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게 됐다. 앞으로 양 기관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친선경기 및 스포츠 기술을 교류하게 된다.

또한 종목별 합숙합동전지훈련을 벌이고,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체육 관련 정보공유 등 업무교류도 활발히 펼쳐게 된다. 아울러 체육교류 종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전문·생활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경기도체육회 2022년도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경기도체육회는 6월 29일 이원성 회장 등 대의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경기도체육회장 선거 보고, 임원 변동 보고, 감사선임 보고,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조직개편 보고 등 보고사항 4건과 경기도체육회 정관 개정(안)에 대한 심의안 1건을 심의의결했다. 경기도체육회는 7월 공식적으로 도정을 수행하는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됐던 체육 행사와 대회 등 여러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 도민 체육 여건을 보장하고 행복권 추구에 이바지하며 경기체육 발전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충청북도체육회 제1회 충청북도체육회장배 게이트볼대회 개최



제1회 충청북도체육회장배 게이트볼대회가 6월 30일 음성 금왕생활체육공원에서 개최, 도내 11개 시·군에서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2022 JULY

시도체육회

마무리됐다. 개회식에는 윤현우 충청북도체육회장, 조병옥 음성군수, 최용락 음성군의장 등이 참석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가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번 대회는 충북게이트볼협회가 주최하고 충청북도체육회가 후원했으며,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해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문화 정착에 기여코자 신설됐다. 총 56개 클럽이 참가한 이날 경기에서 미라클클럽(진천)이 우승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직지클럽(청주)과 신백클럽(제천)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월외클럽·군서클럽(옥천), 광혜원클럽(진천), 엘지클럽(충주)이 장려상을, 오창클럽(청주), 보청클럽·산외클럽(보은), 삼보클럽·중평농협클럽·중평클럽(중평), 가곡클럽·아상천클럽(단양)이 감투상을, 유수길(중평), 이희열(괴산)이 모범심판상을 각각 수상했다.

충청남도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회의 개최



충청남도체육회는 7월 5일 경기력향상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대비를 위한 충청남도 대표선수 강화훈련 지원체계의 기틀이 마련됐다. 충청남도선수단은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 동안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 49종목 1,7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이다. 전국체육대회는 코로나19로 2년간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않았으나 금년도는 정상 개최된다. 2년을 기다린 만큼 충청남도선수단은 강화훈련비를 2배로 올려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지급할 계획이다.

부산광역시체육회 BNK저축은행과 근대5종 실업팀 지원 협약 체결



부산광역시체육회가 6월 17일 BNK저축은행과 근대 5종 실업팀 후원 협약식을 가졌다. BNK저축은행은 글로벌 스탠다드 금융그룹을 지향하는 경영 비전에 적합한 스포츠로 근대 5종 종목을 선택했으며,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선수에게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비인기 종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0년부터 부산시체육회 근대5종팀에 선수단 운영비와 장비, 훈련복 등 경기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까지 3명의 여자선수로 구성됐던 근대 5종팀은 BNK저축은행의 지원으로 2021년부터 김세동, 문주성, 손정빈 등 3명의 남자선수를 영입해 혼성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해 'BNK저축은행 근대5종팀'으로 팀명을 변경해 각종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한편, 근대 5종 경기는 펜싱·수영·승마·사격·육상 등 5개 종목을 하루에 모두 진행해 각 종목 득점 점수를 합산한 총점으로 순위를 정하는 경기이다.

SPORTS1 NEWS

시도체육회

광주광역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공모사업 역대 최고 국비 확보



광주광역시체육회(회장 이상동)가 2022년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공모사업'에서 국비 예산 8억 9,199만 7,000원을 지원받게 됐다. 광주광역시체육회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서 실시한 지방체육진흥사업으로 지원받았던 국비 중 역대 최고로, 지난해보다 8,500여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지방체육진흥사업 이름으로 진행됐던 공모사업은 지난해부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활성화와 클린문화 조성 노력의 유인책을 제공하고자 직장운동경기부에 초점을 맞춰 지원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20개팀(위탁운영팀 포함)과 5개 구청에서 운영하는 6개팀이 이번 공모사업의 지원을 받게 됐으며, 광주를 대표하는 실업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대회출전비, 전지훈련비, 각종 경기(훈련)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는 한국리틀야구연맹과 함께 7월 9일부터 18일까지 열흘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전국의 야구 꿈나무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뽐낸 이번 대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10주년을 맞이해 개최하는 대회로 전국리틀야구단 110개 팀이 참가해 단일토너먼트 방식으로 총 109개 경기가 진행됐다. 특히 올해 처음 열리는 만큼 공부하는 야구선수 육성 및 야구경기력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야구대회 운영을 통해 지방 야구 활성화에 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시 제1회 제주해녀배 전국 핀수영대회 개최

제주특별자치시체육회는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에서 제1회 제주해녀배 전국 핀수영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제주시와 대한수중·핀수영협회, 제주특별자치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수중·핀수영협회, 제주시수중·핀수영협회, 제주특별자치시체육회가 주관한다. 제주시는 대회에 앞서 지난 5월부터 초·중·고대학생일반부로 나눠 선수를 모집한 결과 전국 16개 시도 66개팀, 246명의 선수가 신청했다. 이들은 대회의 부문별 경기에서 각자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체육회 '2022 제2차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대전광역시체육회가 7월 4일, 2022년도 제2차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임원 변동,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결과 등 보고사항과 정관 개정의 심의 안건에 대해 원안 의결했다. 구체육회장 중 1인을 선임하는 행정감사에서는 전문수 유성구체육회장이 선임됐다. 또 3명의 이사 결원에 따라 서철만 회원종목단체 전무이사협의회장, 김홍설 배재대 교수, 한동유 한남대 교수 이사가 보선된 내용이 보고됐다.

2022 JULY

회원종목단체

대한민국농구협회 학생심판 양성교육 참가 학교 모집



대한민국농구협회는 2022년 학교 스포츠 클럽대회 지원 학생심판 양성교육의 참가 학교를 모집한다. 본 교육은 학교 스포츠 클럽에서 소외된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진로 모색의 기회를 제공하며 학생 중심의 학교 스포츠 클럽대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학생심판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협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대한민국농구협회는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에 우수한 심판강사를 직접 파견할 계획이다. 휘슬과 팀 조끼 등 교육에 필요한 물품 역시 지원한다. 또 교육을 이수한 학생심판이 교내대회 및 학교 스포츠 클럽대회에서 심판 또는 운영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수증을 발급한다. 세부사항 및 참가 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농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이종훈 회장 WBSC 집행위원 당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를 이끄는 이종훈 회장이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집행부에 입성했다. 이종훈 회장은 7월 5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4회 WBSC 총회 신임 집행부 선거에서 소프트볼 분과 집행위원 3명 중 1명으로 뽑혔다. 이종훈 회장은 과반을 득표해야 당선되는 규정에 따라 11명의 후보와 8번에 걸친 재투표를 거쳤고, 끝내 당선됐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임원이 WBSC 선출직에 임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16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부회장으로 야구·소프트볼 행정 경험을 키운 이종훈 회장은 지난해 협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당선된 뒤에는 신세계 이마트배 전국고교야구대회와 노브랜드배 고교동창야구대회를 비롯한 각종 사업 확대, 후원사 확보 및 수익 구조개선 등으로 협회의 재정행정 기반을 다졌다.

대한테니스협회 신임 집행부 선임



대한테니스협회가 정희균 회장 체제 신임 집행부를 선임했다. 정 회장은 7월 6일 박용국 전무이사, 이동건 사무처장, 차정훈 공모사업단장 등 신임 집행부를 구성했다. 대한테니스협회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시행하는 '2022년 승강제리그', '유·청소년 클럽리그(i-League)', '유·청소년 주말리그' 등 대형 공모 사업에 동시 선정되며 선진 테니스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희균 회장은 "협회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대형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등 새롭게 도약할 기회를 마련했다. 이후 잘 실행할 분들이 필요해서 새로운 임원진을 구축하게 됐다. 인선의 첫 번째 기준은 사심없이 테니스를 위해 헌신할 분이고, 두 번째는 능력이다. 대외적으로 검증된 분들을 모셨고, 협회가 한 단계 도약할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SPORTS1 NEWS

회원종목단체

대한핸드볼협회

대한핸드볼협회장배 생활체육대회 개최



대한핸드볼협회가 주최하는 '제14회 대한핸드볼협회장배 전국생활체육 핸드볼대회'가 7월 18~19일 양일간 송파구 방이동 SK핸드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에서 열린다. 선수출신 출전에 제한이 없는 챔피언부, 선수출신이 2명까지 출전할 수 있는 마스터부, 순수 아마추어로 구성된 챌린저부 총 3개 종별이 진행된다. 남자는 전 종별, 여자는 챌린저부만 열린다. 가장 많은 15개팀이 참가한 남자 챌린저부는 조별예선을 거친 후 8강 토너먼트가 진행되며, 6개팀이 참가하는 여자 챌린저부 역시 조별예선을 거쳐 4강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가린다. 5개팀이 참가하는 남자 챔피언부와 2개팀이 참가하는 남자 마스터부는 풀리그로 경쟁한다.

대한바둑협회

무궁화신탁과 2022 KBF바둑리그 타이틀후원 계약



대한바둑협회와 무궁화신탁이 6월 28일 서울시 역삼동 무궁화신탁 사옥에서 2022 KBF바둑리그의 타이틀후원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계약식에는 무궁화신탁 오창석 회장, 권준명 사장, 송종근 경영전략부문 대표 등과 대한바둑협회 서효석 회장, 최채우 이사, 유경민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2022 무궁화신탁배 KBF 바둑리그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아마추어 바둑리그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한다. 전국 시도를 대표하는 12개 팀 1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8월13일 서울에서 5개월간 열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2022 무궁화신탁배 KBF바둑리그는 12개 팀이 정규리그 11라운드 66경기, 총 330국을 치러 상위 6개 팀이 포스트시즌에 진출한다. 포스트시즌은 6강 토너먼트 대결을 통해 최종 우승팀을 결정한다. 경기는 5인 단체대항전으로 진행되며 각 팀에서 남자선수 3명, 여자선수 2명이 출전한다.



2022. 5. 16. ~ 8. 16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신고방법

권익위 홈페이지,
방문접수, 우편

상담안내

국번없이 110번,
1398번



국민권익위원회 복지 · 보조금부정신고센터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이상 운동
더 건강하고 꾸준히 지속가능한 힘 **스포츠7330**

